

소감문

신세빈

이번에는 하가다 3번째 가는 캠프였다. 처음에 갔을 때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서 다시는 안 갈꺼라고 다짐했다. 그러다 2번째도 어쩌다 가게 되었는데, 가서 하가다를 통해 변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확실히 머리가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하가다 하는게 즐거웠다. 그리고 이번에 가는 캠프는 권유가 아니라 내가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다 교회 학생부 거의 다 가게 되면서 이번 여름은 2번의 수련회를 가는 느낌이었다. 사실 하가다 캠프를 여러 번 가면서 이번처럼 가장 열심히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찬양 시간에 땀나면서 뛰어보기도 처음이었다. 이번에 우리 팀은 고2부터 장년까지 다같이 했는데 정말 어른들 하시는 것 보고 많은 것을 깨달았다. 한 교회에서 70-80명 정도가 왔었는데 그 중에 50명은 다 장년 부였다. 정말 60대 넘으신 어르신 분도 왔었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보고 도전을 받기도 했다. 다음엔 우리교회에서도 다같이 캠프에 참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 캠프는 거의 항상 여러 목사님 들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많은 은혜가 되었다. 특히 내가 가장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번에 캠프 통해서 내가 받은 레마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인데 내가 찾지못한 해답을 주는 말씀인 거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다. 그냥 구하는게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찾으려고 노력하는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구하고 찾기만 하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다. 이번 캠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사실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랑 함께 계셨고 언제나 나를 위해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 주신다는 것도 깨달았다. 담에도 또 가고 싶은 캠프가 되었다. 하가다캠프는 중독인 것 같다.